

독일 경험을 통한 통일 준비 교사 연수

독일 통일 전문가에게 듣는다.

일시 : 2012년 10월 9일

장소 :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Konrad
Adenauer
Stiftung



여명학교
Yeomyung School

일정 안내

시간	내용	비고
09:30	등록	
10:00	<p>개회사 - 이흥훈 교장 (여명학교)</p> <p>인사말 - Norbert Eschborn (노르베르트 에쉬보른)</p> <p>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 소장</p> <p>축사 - 김영탁 본부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p>	
10:30	<p>“1990년 통일 이후 동독 교육제도의 재편성”</p> <p>Winfried Willems (빈프리트 빌렘스)</p> <p>- 동독 교사, 통일 후 교장, 2002~2011년 작센안할트(구 동독지역) 주 문화부 장관</p>	
12:00	자유토론 I	
13:00	점심식사	
14:00	<p>“통일 독일의 지속적 과제로서의 민주주의교육”</p> <p>Ronny Heine (로니 하이네)</p> <p>-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독일 벤트그레벤 교육사무소 소장</p>	
16:00	자유토론 II	

목 차

강연 1)	1990년 통일 이후 동독 교육제도의 재편성 (빈프리드 빌렘스)	1쪽
강연 2)	동독의 학생들과 통일 독일의 학생들 (로니 하이네)	17쪽
	질문지	25쪽

강연 1

1990년 통일 이후 동독 교육제도의 재편성 - 역사, 난제,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빈프리드 빌렘스 (전 작센안할트연방주 장관)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다루기 앞서 1990년 통일 당시 그리고 그 이후 구동독지역의 교육부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동독 주민들이 겪은 삶 전반의 변화를 다 서술하는 것은 어렵기에 단지 키워드 정도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치고자 한다.

1989-1990년 당시 아무도 두개의 완전히 상이한 사회, 경제, 법률, 사회질서 체제의 통합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와 삶의 모든 영역이 집권당 독재 하에 통제되고 이 독재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누리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독재 공산국가와의 통합경험도 그 전례가 없었다.

오늘날에 되어서야 동독의 주민들이 직장, 보건부문의 변화로 인해 그리고 사회보장 부문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경쟁사회의 규칙의 도입 등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이 바뀔에 따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아가고 있다. 동독주민들에게 완전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관련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동독시절 모든 가격은 법으로 정해놓아서 한 제품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균일했다. 상이한 운송비용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가격을 맞추어 어디든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했다. 그래서 가격이 바로 제품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은 제품이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시간에 심지어는 옆 가게에서 다른 가격을 받고 파는 것을 알게 되고 상인들이 시장의 법칙에 따라 그리고 수익의 창출을 위해 가격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뮌헨에서 플렌스부르크와 비교해 동일 노동에 더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서독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임금을 확정하는 동독 출신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동독에서는 노동의 형태를 분류하여 누가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누구의 성과가 좀 덜하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같은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임금을 받았다. 그 결과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다지 득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과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재산이라는 확신을 기반에 두고 있다. 성과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의 차이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해주는 동시에 누군가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도록 항상 주시하고 수입이 적은 사

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유체제는 사람들에게 자기책임, 자기주도적 행동, 스스로의 인생설계에 있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보건, 어려운 시절을 대비한 보험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책임을 지는 '보살피는 국가'와는 다르다는 것이 동독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었다. 또한 사회복지 혜택이 국가에서 당연히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또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혜 받는 것임을 깨우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독에서는 재판권이 사회주의 통일당 권력과 정치 지침에 종속 되었는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있고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필요 시 국가나 관청을 상대로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사법부의 판결이 상이할 수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망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더 든다면

중앙집권 체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결정과정이 때로는 매우 힘들고 오랜 시간을 끄는 일임을 알게 되고 의회에서 복잡한 현안들에 대해 옳은 답을 찾고 다수를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의 소모를 요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과 지방자치 단체, 주정부, 연방정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무지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졌고 낮은 선거참가율을 보였다. 국가와 사회의 형성이 몇몇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개개 시민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중앙에서 강력하게 관리하고 획일적인 지침이 지배하는 교육제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통일독일에서는 16개의 연방주가 자신의 학교와 교육시스템의 많은 영역에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지며 각 주별로 학제, 교안 등에 차이가 있다는 변화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치와 사회분야에서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이 통일 이후 애써 이룩한 위대한 업적의 의미가 퇴색되곤 한다. 동독 경제의 붕괴 이후 새로운 경제구조와 현대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세워졌고 동독의 경제로 파괴된 환경의 복구, 보건분야의 현대화, 현대식 대학으로의 재건, 최신 장비를 도입한 대학병원 건설, 도시와 마을의 미화와 복구, 교통인

프라의 현대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필자는 필자가 알게 되고 오늘날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동독출신들의 생애에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많은 이들이 바람직한 삶을 살고 비뚤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직장, 가족에서 성과, 올바른 태도, 책임의식을 발휘했다. 이들은 개인의 삶 속에서 자부심을 키워 갔으며 이러한 자부심은 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989년 이전의 동독 역사의 진실에 대해 즉 권력의 남용,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행하는 부정의, 국가기구와 슈타지의 폭력, 자유의 억압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를 미화해서는 안된다.

또한 통일 이후 개인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실직이나 당시까지의 사회적 지위를 상실 당했다고 해서 과거 공산주의 체제 자체를 좋고 정의로운 사회모델이었는데 안타깝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유감스럽게도 개개인에게 부당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는 식으로 미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동독교육 체제가 오늘날의 교육제도 보다 더 좋았고 정치적인 교화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에도 유지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미화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리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과거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독일의 위대한 작가이자 풍자시인인 에리히 케스트너는 자신의 시 'in memoriam memoriae(기억 속의 기억)'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기억은 신비로운 힘이다

사람을 바꾼다

아름다웠던 것을 잊는 자는 악해지며

나쁜 일을 잊는 자는 어리석어진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1989년 이전의 동독 교육제도**에 대해 서술하겠다.

중앙교육제도는 집권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과 장기간 동안 인민교육부 장관을 지낸 마르고트 호네커에 종속되었다. 학사(學事)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각 지방 인민교육 조직(도, 군위원회) 관할이었고 이러한 조직들은 인민교육부에 종속되어 있었다. 국가의 영향력은 관련 입법, 통일된 교안, 통일된 교과서 발행과 같은 모든 수업자료 제작과 도 및 군 차원의 관리위원회에까지 미쳤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형태의 학교를 다녔고 똑같은 수업내용을 배웠다. 학교 한곳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립학교는 없었다.

동독의 교육제도는 지식의 전달 외에도 정치 및 사상교육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마스레닌주의 교육학은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주의 의식의 형성이 매우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제도의 각 영역 즉 취학 전 교육부터 대학까지 연속성을 띄는 구조와 내용으로 통일된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여기에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조직과 청소년 조직의 연계가 예가 될 수 있다.

모든 교장들은 사회주의통일당 출신이었으며 "사회주의 통일당 결의에 따른 학교운영"을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1979년 학교규정).

사회주의 사상은 거의 모든 과목에 접목되어 동독의 정당과 국가지도부와 당국의 정치는 항상 옳고 중요한 것으로 각인되었다. 이러한 의도에 무엇보다 더 7학년부터 사회주의의 가치, 이론, 역사를 배우는 '국민교육 과목'이 잘 부합했다. 역사수업 또한 정치사상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동독의 학교법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독의 교사와 보육교사는 자라나는 세대의 사회주의 교육과 보육에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다. 젊은이들을 지혜, 사랑, 진중함으로 대하여 그들의 사회주의 속에서의 삶을 준비시킨다."

순응적인 태도는 동독의 학교에서 필수였다. 서구의 복장, 서구의 잡지, 국가나 당에 대한 비판, 종교의 신봉, 특정 수업 내용이나 형태를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매우 철저한 관찰이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는 학급회 차원에서 그 다음으로는 교사, 교무과 그리고 결국 사회주의 통일당 차원의 교

육관련 청소년 조직이 관찰임무를 담당했다.

모든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위해서는 언제나 교과목 지식 외에도 학생의 경우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나중에는 인민군에서의 장기복무 의지,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며 대중조직이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지 또는 사회주의통일당 당원인지 등이 중시되었다.

동독 교육제도의 개괄

1) 탁아소

탁아소는 생후 몇 주된 영아에서부터 3세까지의 어린이를 받았다. 탁아소의 주요 역할은 건강, 정서, 인지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탁아소에서 국가 교육계획에 입각한 조기교육이 시작되기도 했다. 운동의 장려, 지능 발달을 위한 놀이, 음악, 미술 등이 교육의 핵심이었다. 공동체에 어울리는 인간관계 형성을 지향하였기에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서로 돕기, 예절, 규칙 지키기 등이 탁아소 교육에서 중시되었다. 일반적으로 탁아소는 6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었고 탁아소 공급률은 대략 80% 정도였고 대도시의 경우는 99%에 달했다. 보육교사 3명당 약 15명의 아이를 돌보았다.

2) 유치원

유치원에는 4세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다녔다. 서독의 유치원 교사와는 달리 분명하게 정의된 교육과제를 안고 있었다. 유치원에서는 기초적인 수의 개념, 그림 그리기와 묘사, 글쓰기를 가르쳤다. 유치원에서는 이른바 사회주의에 입각한 정치교육을 시작했다.

3) 종합기술고등학교 -POS

동독교육제도의 핵심은 6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통일된 의무학교인 종합기술고등학교(POS)다. 종합기술고등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4학년(초등학교)에서는 수많은 교사양성 기관(Institute für Lehrerbildung)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한 초등학교 교사들과 미술 교육 또는 음악교사자격을 취득한 개척단 지도자들이 수업을 담당했다. 5-7학년(중학교)과 8-10학년(고등학교)에서는 중등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했다.

이들 교사들은 교육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디플롬 학위와 두 가지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양한 과목 조합이 가능했다. 교사직은 여성의 영역이었다.

종합기술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다양하지 못했고 효율적이지도 못했다. 5학년부터 오로지 러시아어 수업만 있었고 7학년부터 선택적으로 영어 또는 불어를 공부할 수 있었다. 비록 러시아어 시수가 많았지만 학생들의 러시아어 능력은 높지 않았다. 능동적으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반면 과학 분야의 과목은 수준이 높았다. 학생들이 향후 직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생산과 관련된 기술수업이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사회주의 생산 원론’, ‘생산적인 노동’과 같은 과목에서는 실습과 더불어 노동일상의 이론과 실재에 대한 원론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생산적인 노동’ 과목에서 학생들이 격주 단위로 하루씩 기업에서 일했는데 업체에서 별로 의미 없는 업무를 시킬 경우 종종 논란이 되었다.

예비군사훈련과 군사정치 훈령을 다룬 교련수업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9학년부터 필수과목이었다. 이 수업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은 자신들의 역사관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자신들의 국경수비 정책, 베를린 장벽의 건설로 유럽의 평화를 지켰다는 논리를 폈다. 서독의 정치시스템이 잘못되었고 수십억 마르크의 군비를 지출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돈이 없다고 선전했다.

종합기술고등학교 9-10학년, 상급고등학교(EOS) 11년에서 다루는 교련수업 외에도 다른 모든 과목들도 국방교육기능을 내제하고 있었다. 향토연구 수업에서는 아이들은 동독 인민군의 병과와 인민군 복무형태에 대해 세부적인 교육을 받았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군인의 덕목인 규율, 질서, 시간엄수, 위생 등의 중요성을 주입 받았다.

어린이들은 서독에 적이 살고 있다고 배우고 국경수비대가 밤낮으로 국토를 지키고 언제나 자신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배웠다. 이러한 이야기는 어린이 서적과 노래 가사 등을 통해서도 가르쳤다.

4) 상급고등학교(EOS)

상급고등학교(EOS)는 2년간 아비투어(대학입학자격시험)을 준비하던 곳으로서 대학교로 진학을 위한 가장 빠른 루트였다. 상급학교 정원은 필요한 대학생의 수에 따라 정해졌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종합기술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 중 평균적으로 학급별로 2-3명 만이 달리 말하자면 7-10%만이 상급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체제에 대한 어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매우 선별적이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상급고등학교 진학에 있어 학업성적 분만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신뢰도'와 부모들의 출신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체제에 반대하는 징조가 보일 경우(예를 들어 목사의 자녀들) 상급고등학교 진학은 거의 불가능했다.

입학규정에는 “상급고등학교에는 학업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성숙한 정치-윤리와 성격을 지닌 자로서 자신의 태도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독일 민주공화국과의 결속을 증명한 자가 입학할 수 있다. “ 고 명시되어 있다.

5) 직업교육과 아비투어(대학입학자격시험) 병행과정

본 과정은 상급고등학교 입학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과정이었다.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직업학교를 다니고 훗날 기술 또는 공업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아비투어 시험을 볼 수 있었다.

6) 특수학교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다니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특수학교가 있었다. 10년 과정의 농아인, 맹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특수학교와 언어치료 학교, 보조학교 등이 있었는데 학습능력이 있는 어린이들만 다닐 수 있었다.

7) 특수목적학교

60년대 초부터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들이 늘어났다. 체육, 음악, 러시아어, 수학-과학 인재 양성에 특화된 학교들이 있었다.

특수목적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체육시간에서도 수많은 대회에 참석하는 전문체육이 중시되었다. 전문체육과 각 대회의 결과를 통해 동독은 자신의 능력과 뛰어남을 과시하고자 했다.

체육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따로 돌보지 않았다. 동독의 교육서적에는 체육에 약한 학생들을 어떻게 돕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도 성공경험을 맛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와 있지 않았다.

수학과 과학 영재들은 특수목적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과외 활동에서도 이를 테면 연구회, 클럽, 서클 등에서 지원했다. 이러한 영재들은 학교, 구, 군 단위의 올림피아드 등으로 발굴했다.

교사, 학생, 부모

동독에서 교사는 절대적이고 거의 침해할 수 없는 권위를 가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우 권위적인 지도방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학생들의 자주성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교사는 강의를 하고 학생은 배우고 반복하는 프론탈수업¹⁾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고, 문제해결능력, 능률적인 사고를 이끌어낸다고 보다는 단순한 기억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 독립적 학습이나 학생 자신의 견해가 중시되지는 않았다.

성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적은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고 학생들의 성적은 각 교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았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평균점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가정은 어떻게 보면 체제의 약점이었다.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부정적인 행동양식은 많은 경우 가족에 원인이 있었다. 이

1) [역주] Frontalunterricht : 정확하게 짜여진 커리큘럼과 교육목표 안에서 교육하는 수업형태

런 이유로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학부모 자문회, 학부모 모임 등을 조직했다. 이러한 모임으로 학교와 가정의 협력을 강화하고 가정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주의 방식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다. 학부모 자문회는 학부모 모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이들은 가정 방문을 하여 부모들에게 지속적인 성과압력과 규율강조의 필요성을 설득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정책에 나름 기여한 셈이었다.

어린이개척단과 자유독일청년단(FDJ)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들의 임무는 ‘공산주의에 대한 확신과 행동양식의 발전’ 이었다. 사회주의통일당에서는 어린이개척단과 자유독일청년단(FDJ)을 ‘사회주의 학교의 가장 가까운 동지’ 라고 묘사했다.

에른스트 텔만 어린이단(1-7학년)에 동독 학생의 90%가 소속되어 있었다. 자유독일청년단(8-12학년)에는 70%가 소속되어 있었다. 회원가입은 실제로는 강요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성직자를 부모로 둔 아이들처럼 가입을 피한 아이들은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불이익은 학급 내의 고립으로 시작해서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아비투어(대학입학자격시험)나 대학진학을 거부당하는 상황에 까지 달할 수 있었다.

어린이개척단과 FDJ가 청소년 신문, 청소년 라디오, 문화생활, 여가 및 휴가 프로그램 등을 주도적으로 주관했다. 이러한 단체의 핵심인물들은 당에 충성하는 자들이었다.

기타 다른 독립적인 청소년 단체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로부터 제한되고 방해 받던 교회의 청소년 모임들의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학급별로 빈틈없는 개척자 그룹 또는 FDJ 그룹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학교행사, 정치행사 또는 여가활동을 관장했다. 이 그룹들은 교내 상임 개척단 지도자가 이끌었다. 개척단 지도자는 동독에서는 엄연한 직업이었다.

개척단과 FDJ의 임무 중 특히 사회주의통일당의 전당대회나 다른 정치 관련 행사에서 부여하는 임무에 교사와 학생은 참가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성년식

학교차원에서도 성년식을 준비하고 진행했다. 8학년 때 행하는 세속적인 성년의식으로서 교회의 입교식과에 비견될 수 있었다. 사회주의통일당 국가와 목표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지지 서약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의식이었다. 성년식과 이로 인한 압박으로 인해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힘든 갈등을 겪었다.

결론

동독 교육제도의 강점은, 모범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인력을 통한 취학전(vorschulisch) 교육의 지원, 특수목적학교와 특수목적공동체의 영재 교육, 자연과학의 입지, 집중적인 학습과 지식습득, 학제간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고안한 커리큘럼, 그래서 예를 들어 수학과 물리의 학습내용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그리고 교육과정의 재정적 지원 등이었다.

동독 교육제도의 단점은, 모든 교육과정에 정치이념의 주입, 세계관과 정치적인 입장 형성을 막으려는 시도, 자결권의 비인정, 학교의 군사화, 학교의 조종, 국가안전부를 통한 교사와 학생의 감시,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교육기회 박탈, 약자의 소외, 선택 받은 학생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오늘날에는 과거보다 3배나 많은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학생의 자기학습능력이나 창의력을 허용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습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권위적인 수업방식, 외국어와 인문과목 교사의 충분하지 않은 전문지식 등이었다.

1989/90년의 변혁과정

-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처음으로 자유선거가 치러지면서 동독 국가의 붕괴가 예고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통일과정이 매우 역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법과 동독일 연방주 가입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통일(1990년 10월 3일)이 곧 이룩될 것이란 사실이 분명해졌다.

중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균등, 학생과 교사 개개인과 주장에 대한 존중, 세계관에 관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본권리, 사회주의 주입 철폐, 학교의 감시 축소, 학생, 교사, 학부모의 참여권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동독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제안이 있었음에도 동독 교육제도의 개혁은 실시되지 않았다.

동독 교육제도를 서독 교육제도로 바꾸는 것이 서로 다른 체계, 즉 사회주의통일당이 독재하는 동독의 사회주의적 통일체계와 연방주의와 사회의 다원주의가 특징인 서독의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동독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실제적인 통합의 과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사들이 변혁과정 중에 경험해야 했던 충격과 역동성, 마비된 상태와 개방성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동독의 체제를 민주주의로 전환하게 되면서 신속하게 서독의 교육제도를 동독에 도입해야 했다.” (Freya Klier, Lüg Vaterland, Erziehung in der DDR, München 1990, S. 10)

이렇게 서독의 교육제도가 동독에 이전되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서독의 공무원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이들은 서독일의 경험과 체계를 이전하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독 체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동독 주민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감하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수들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실수들로 인해 동독 사람들은 동독 교육제도의 단점들은 무시하고 동독 교육제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더불어 서독 교육제도가 도입될 때 서독 교육제도의 단점들도 함께 도입되었고, 그 단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 체계를 비판할 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독 체계를 „찬양“할 때, 갑작스럽게 사회와 생활 환경이 바뀌어버린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개혁을 통해서 바뀐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동독 학교의 상태를 비판할 때 동독 학교의 상태와 동독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을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서독의 교육제도(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 종합학교)는 조금의 개혁이 이뤄진 다음(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를 중등학교 또는 중등교육기관으로 통합) 그대로 동독에 이전되었다. 이렇게 통합된 모델은 이제 서독일 지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동독에서는 인구구조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 모델이 효과적이었다. 통합모델을 통해 통일 이후 동독 학교의 폐교

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작센-안할트 주에는 1991/92년 약 372,0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녔지만, 현재는 176,000명에 불과하다. 90년대 출생률은 55%나 줄어들었고, 이는 학교와 교사자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통일 이후 동독의 졸업장을 인정해주었다. 교사자격증도 인정해주었지만, 기존 동독 교대의 통합된 교사교육은, 이론수업을 받은 다음 실습을 해야 하는 서독의 2단계 모델로 대체되었다.

현대 교육학 이론을 혁신적으로 적용한 신선한 수업을 하는, 개방적이고 친절한 학교 분위기를 지닌 사립학교에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이런 사립학교들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많은 교사들은 이에 불만이 많았다.

동독의 단일학제(Einheitsschule)가 사라지게 되면서 독일에서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일종의 실험이 감행되었다. 모두에게 당시의 상황은 낯설었다. 새로운 학교와 학교행정규정뿐만 아니라, 어느 동독 교사도 전에는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교육과 수업방법을 적용해야 했고, 새로운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해야 했으며, 새로 구성된 교사와 학급, 정치적이지는 않지만 경험이 전혀 없는 교장과 일해야 했고, 낯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악한 학교 건물 등에서 지내야 하는 등 모든 것이 낯설었고, 이런 낯선 것들이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이데올로기화,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였던 커리큘럼, 기존의 수업내용, 권위적인 수업방식, 프론탈수업, 충분하지 않은 차별화와 개인학습이란 기존의 교육방법을 따를 수 없게 되었다.

동독에서 교사교육을 받았고 교사로 활동하였던 교사들이 갑자기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연방주 별로 정확한 수치는 다르겠지만, 교사의 약 10-20%는 이데올로기 사상이 짙거나 국가안전부와 협력한 이유로 교사직을 그만두었거나 해고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민 윤리학 (Staatsbürgerkunde) 교사들은 역사 또는 사회를 가르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일방적인, 동독의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 독일의 경제, 법 그리고 사회질서의 모습을 조금 가르쳤다.

학교의 교장들은 거의 모두 사직했지만, 교사로는 계속 활동할 수 있었다.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젊은 교사들은 소수만 임용되었다. 즉 교사의 수는 동독 시절 교사의 수와 유사했다. 많은 교사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했다. 현대 외국어 수업이 도입되면서, 영어와 불어 교사가 부족하였기 때문

에 러시아어 교사들은 단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했다.

1990/91년에는 학생의 80-90%가 러시아가 아닌 영어를 제1외국어로 선택했다. 많은 교사들은 종교 또는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교육되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고, 그래서 교사 자격수준의 큰 부분이 희생되었다.

그렇다면 교육제도 통합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오늘날까지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또 동독 학교에 대한 “동경”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독일 통일 과정 중에 어떠한 실수들을 하였는가?

앞서 언급한 대로 1990년 이후 대부분의 교사들은 계속 교사직을 이어나갔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김나지움, 특수학교, 직업교육학교에 배정되었다. 교사들이 새로운 임무를 맡기에 적절한지 그들 과거의 이력을 확인하는 작업은 어려웠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는 너무 많은 정치적인,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 교사들이 계속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들이 동독의 교육제도를 미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교사들은, 물론 통일 과정 중에 그들이 하였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 경제, 법, 복지에 대해 회의적이고,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많은 학생들은 동독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커리큘럼에 동독의 역사와 서독의 역사 과목을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교실 안에서 민주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을 믿는 교사들로부터 역사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풍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은 대부분의 경우 이뤄지지 않는다. 전 동독 시절의 교사였기 때문에, 또는 서독일 출신 교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고 싶어하지 않으며, 또 학부모가 비판적으로 수업내용을 점검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꺼린다.

게다가 교사들은 이질적인 학급과 학생들, 서로 다른 출신 배경의 다양한

학생들, 서로 다른 재능과 학습능력, 서로 다른 노력, 의견을 갖고 있으며 학교나 교사에게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하는 학생들을 다뤄본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떠한 비판도 받지 않고, 규율을 어기는 학생들은 권위적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었던 동독의 교육제도를 갈망했다.

통일 이후 동독의 교사들이 어떠한 충격을 받았는지, 교무실 안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하루 아침에 교사의 위상은 떨어졌고, 많은 학생들은 교사들을 낡은 국가규정을 대변하는 자들로 생각했다. 교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학생들은 정확하게 관찰하였다. 갑자기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칭찬하면,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동독의 이데올로기를 계속 대변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은 어떠한 입장도 대변하지 않고, 상황을 피하고,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많은 교사들은 그들이 처하게 된 새로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렸고,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과의 공개적인 대화를 피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수업에서 동독 역사를 거의 다루지 않게 되었다.

초기의 변화가 진정되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새로운 교육제도가 정착되었을 때, 교사들은 모든 것이 훨씬 더 좋았던 동독 교육제도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들이 동독 교육제도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노스텔지어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물론 모든 교사들이 동독 교육제도에 대해 향수를 느낀 것은 아니지만, 아쉽게도 상당히 많은 교사들이 그랬다.

교사 재교육에서 새로운 질서와 다원주의적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고, 모든 학교에서 동독의 과거에 대해 다루도록 했었더라면 좋을 것이다. 학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도 구 동독의 교육학적 방법이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론탈수업, 강의식 교육, 테스트식 대화, 학생들은 문제나 해결방법을 서술하는 데에 노력하지 않고, 학습해야 하는 결과를 제시하는 데에만 집중, 학생의 수업참여를 평가하는 데에 많은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술식 시험과 테스트를 다수 실시 등이 있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수학이나 자연과학 과목에서 좋은 PISA 점수를 받는 데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영어나 불어 수업의 낮은 점수를 보면, 수업에서 적극적인 언어의 사용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영어는 글로만 하

는 연습문제 풀기 과목이 아니라, 살아있는, 적극적으로 말을 하면서 학습해야 하는 언어과목이다. 스스로 하는 학습, 배운 지식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 전문지식을 요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될 수 있는 한 스스로 푸는 방법, 어느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방법은 제시된 결과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과 학급에 맞는 커리큘럼을 직접 짜고 수업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항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안을 따라야 했던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어려웠다.

또 수업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수 많은 교과서와 교육 기자재에 대한 안내나 도움이 없어 교사는 힘겨워 했다. 그 결과 교사들은 불안해 했고, 동독 시절과 같이 교과서를 통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많은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담당 행정기관들은 동독 교사들에게 있어 이런 변화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동독 교사들의 경험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동독 교육제도의 좋은 부분들을 제거하였는데, 오히려 어느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면, 학습과 지식습득의 의미, 확인이 가능한 수준 높은 지식의 제공, 반복학습과 복습의 의미, 과목 별로 독립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한 학년과 학급에서 배우는 과목들 간을 연계하여 가르치는 커리큘럼, 학습자가 가져야 하는 규율 등이 있고, 또 유치원에서부터 학교생활을 준비시키거나, 학교와 직업을 연계하는 시스템, 실습수업, 영재 교육 등 많은 것들이 있다.

통일 후 서독 출신 교사와 동독 출신 교사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적어도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였다. 만약에 서독과 동독 출신 교사들이 함께 일할 수 있었다면, 동독 출신 교사들은 예를 들어 프론탈수업 외에도 다른 수업방식이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반대로 서독 출신 교사들은 동독 출신 교사들로부터 군대에서나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규율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존경심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서독과 동독 출신 교사들은 서로로부터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함께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과 학생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아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권위를 얻는 것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1993년부터 교장이었는데, 그 학교에는 교사의 반이 서독 출신, 그리고 나머지 반

은 동독 출신이었다. 우리는 함께 잘 지냈고, 서로로부터 배웠으며, 서로 다른 삶과 직업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는 바뀐 시대에서 달라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했다.

1990년에는 어느 누구도 변혁과정이 많은 시간, 노력, 수고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소수만이 동독 교육제도 중에서도 유지하면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소수만이 구 독일연방공화국의 교육제도에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되지 않았고, 그대로 구 동독에 적용되었다.

통일 후 20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통일 이후에 스스로 노력을 하여 학교에서 계속 교사활동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는 많은 교사들을 볼 수 있다.

점점 더 젊고 교육을 잘 받은 교사들이 학교에 임용되어 교육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독일의 학교들은 오늘날 학교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현대적인 수업방식을 도입하고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게 되었다. 많은 교사들은 협력을 하고, 좋은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열린,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갈등이 발생하면, 학교 위원회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많은 학교들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 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한다. 학교와 기업, 사회복지시설, 연극단체, 오케스트라와의 협력은 당연한 것이 된 학교들이 많다. 해외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들도 상당히 많다. 학교감독관청은 학교의 자문위원이자 파트너의 역할로 바뀌었다.

이보다 더 많은 변화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길고 먼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 길을 밟았다는 것이, 세계화의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중요했고 또 옳은 선택이었다.

강연 2

동독의 학생들과 통일 독일의 학생들 - 2개의 체제로부터의 경험

로니 하이네 (아데나워 재단)

저보다 먼저 발표해주신 분께서 동독의 교육시스템과 독일 통일 이후의 도전과제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앞선 발표의 연정 선상으로 양측 시스템을 다 경험해본 저의 학창시절의 경험에 대해 여러분께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빌렘스 선생님의 발표를 보충하는 차원으로 동독의 교육시스템이 태도와 행동양식에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4년 동독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어린이 보육원과 유치원을 다녔으며 1981년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1993년 아비투어²⁾를 마쳤습니다. 저도 국가가 주도하는 청소년단체의 회원이기는 했지만 부모님은 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단 한 번도 어떤 정당에도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었고 동독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독 인구 1천700만 명 중 당원수가 2백만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모님 모두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는 치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변혁의 시기 즉 동독에서 평화적인 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에 과연 학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인상적인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권위와 신뢰의 실종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동독에서의 학교는 앞선 발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강한 규율이 특징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일종의 관리와 같은 권위를 누리고 있었고 학생들의 향후 인생 향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의 동의 또는 추천이 있을 때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 중등교육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등교육과정 진학에 있어 단지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정치에 순응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상위 교육과정으로 진학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습니다. 일명 사회주의형 인간이 동독 모든 교육영역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공식적인 목표문화이자 지향점이었는데 이 부부에 대해서 제가 추후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사회주의형 인간이라는 개념 속에는 질서, 규율, 청렴과 같이 사상적으로 분명히 정의된 특징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방어태세와 같은 개념 또한 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낙천주의, 유대감, 근면, 적극적인 학습태도와 같은 덕목도 동독에서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동독의 공식적인 목표문화는 다음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역주]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동시에 대학입학 자격시험

- 사회 전반적인 막스 레닌주의 영향력
- 핵심 가치로서의 노동
- 개인의 목표보다는 사회 및 집단의 목표를 절대적으로 우선함
-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한 국가의 독점권

이러한 목표문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탁아소, 유치원, 학교, 사회단체, 국영기업, 군대, 언론 등을 통해 사회주의형 인간으로 교육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동독 지도부에게 있어 미디어 분야가 딜레마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국민의 여론형성과 정보제공을 하는 매체였지만 1970년대 말 이러한 기능을 한 것은 동독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아니라 주로 서독의 미디어였습니다.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체제에 충실한 당간부들조차도 점점 서독의 방송과 뉴스를 통해 정보를 받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통일당의 미디어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동독 국민들은 서독의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70년대 초 서방의 주재원의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정부 공식미디어의 정보 독점은 무너졌습니다. 동독의 폐해와 붕괴현상이 꾸밈없이 보도됨에 따라 동독국민들은 점차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동독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문화에 가족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독의 가족사회학자와 청소년 연구가들의 연구 결과 70년대 말과 80년대 가족이 아이들의 생각, 가치관, 삶의 방향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는 가족, 청소년, 교육정치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빈틈없이 가족교육에 간섭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족은 가족의 핵심기능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마음껏 사적인 토론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국가가 공식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상과 행동양식을 키워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

국민들의 실질적인 정치문화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일상으로 인해 오히려 사생활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대부분에게 있어 정치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적인 부분과 거리를 두고 국가의 폭넓은 권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의식에 경의를 표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동독 국민들이 매일 겪었던 일상 속에서의 경험과 사상적인 규범 및 교육전략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자기모순은 동독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족은 제가 학생이었던 당시에 학교나, 직장 그리고 타인과 이야기 할 때와 가족 내에서 이야기 할 때 다른 식으로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자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학교에서 필요한 태도를 재빨리 습득시켰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눈에 띄어서는 안 되며 특히 동독정치의 목표문화에 위배되는 정치나 사회 관련된 영역에서 비판적인 태도나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 모토였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이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은 언젠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마련이며 어떤 삶의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자립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동독의 학교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 민주적인 논쟁문화, 그 어떠한 절대성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공유하는 것, 타협안을 절충하는 것,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결정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들은 동독에서 구현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동독의 교육은 순응과 규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대해 반복해서 반항하는 학생들은 학업성적과는 무관하게 아비투어를 볼 수 있는 교육과정에 진학할 기회를 잃거나 대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비록 동독 국민과 청소년의 다수가 이러한 여건에 맞춰 살면서 국가의 선전과 동독의 실상을 구분할 수는 있었지만 동독의 체제는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독체제의 안정화에 기여를 했다고 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필요한 사회적 역량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제 전환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체제전환기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90년 당시 동독을 되돌아보면 한편으로는 기쁨, 희망, 기대감이 넘치는 시기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던 시기였습니다.

1989년 11월 9일 국경이 개방되고 나서 당시까지 공식적으로 유효한 가치들이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까지 있던 교안(敎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고 한동안은 정비된 학교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당시까지 유효했던 규범과 가치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목이 폐지되고 교육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거의 기존의 교사들이 담당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들 교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부분이 준비 없이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동독의 교과서는 하루아침에 서독 출판사의 교과서로 대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나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교과목의 변경된 내용과 심화교과과정 즉 코스시스템 운영으로(기존의 학급제 폐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힘든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있어서 이 전환기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빌렘스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이미 언급된 부분입니다.

저도 이 당시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껏 없었던 학내 자유와 개방성이 생겨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견 개진 시 또는 행동에 있어서 더 이상 가족과 학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특히 역사, 지리, 문학과 같은 과목에서 다루는 새로운 수업내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새 더 이상 규율을 이전처럼 중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의 이러한 변화가 점차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큰 도전이라? 당시 저는 저에게 익숙한 질서와 당시의 관점으로는 믿을 만한, 즉 보장된 시스템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유동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핵심과목들(과학, 독일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스트레스 요인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에서 내면의 안정과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단 한 번도 이러한 상황이 감당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인상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 중 많은 이들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하여 학업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지 학교의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족 내에 불안과 방향성 상실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지할 곳 즉 안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동독의 교육시스템과 일상이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파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야 비로소 알게 된 부분이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능력과 입장과 의견들에 관한 건설적인 의문제기능력 한 마디로 토론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론능력을 동독 교육시스템에서 다루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은 부분이었지만 통일된 독일에서는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핵심능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동독 교육시스템의 결함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교적 빨리 새로운 학교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었고 그 후 제 인생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학창시절 마지막 4년과 아비투어를 자유로운 학교 시스템에서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되돌아보면 20여 년 전 학교 시스템의 전환 과정에서 다르게 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이지만 당시 책임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없었고 실험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시스템의 전환은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독일 통일에 관한 오늘날의 문제를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와 관련 있고 제가 정치 교육가로서 직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동독시절의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통일과정에 있어서 개개인이 단절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 통일 이후 22년이 지난 시점에도 구동독지역의 정치관과 가치관이 구서독지역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동독지역의 40%만이 독일의 민주주의체제에 만족하고 있고 약 20%는 민주주의체제 보다 더 낡은 국가형태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과거 국가사회주의 시절을 포함한다면 구동독지역에는 56년간 민주주의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집중적인 정치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학원교육뿐만 아니라 학원 외 교육도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배우는 것은 199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질서에 확신을 심어주는 과제는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알리기가 아니라 대화를 의미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우리 정치교육은 기본적인 지식의 제공(예컨대 독일 정치시스템의 기능하는 방식) 외에도 가치를 전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도덕성과 강한 가치의 기반도 지켜야 합니다. 정치교육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수용은 익숙함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정치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가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자유민주주의적인 의미로 알리고 전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과제입니다.

동독교육의 후유증이 특히 자유와 평등의 균형에 관한 문제에서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동독인들은 자신들이 한때 갈망하고 직접 쟁취한 자유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그사이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고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의 절차를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해 불쾌함과 체념, 정치에 대한 무관심 또는 정반대로 포퓰리즘이나 극단적인 정치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의견의 다양성이 결속성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유는 힘듭니다. 자유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이며 자유는 또 참여하는 것이며 공동체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경제위기가 특히 구동독지역에 큰 타격을 주었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위기가 정치시스템 자체역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치교육 차원에서 알려야 합니다. 오히려 사회적시장경제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경제질서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많은 동독출신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독일 통일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40년 동안의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로 인해 아직 모든 구동독지역의 생활수준이 구서독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치교육은 특히 동독에서 중요합니다. 정치교육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측정 불가능하지만 분명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치교육이 지속적인 과제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지

강연을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기록하여 제출해주시요.

이름:

질문지

강연을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기록하여 제출해주십시오.

이름:

독일 경험을 통한 통일 준비 교사 연수

독일 통일 전문가에게 듣는다.

2012. 10. 9.

콘라드 아데나워 한국지부 / 여명학교